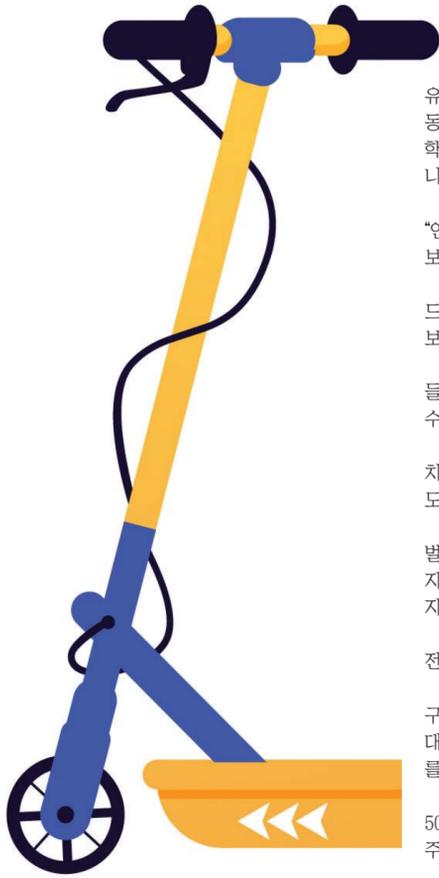


규제 풀린 전동 킥보드, 더 위험해졌다

헬멧 안써도 되고 음주운전 해도 범칙금 3만원 내면 '끝' 인도·횡단보도 '무법 질주' 만연... 보행자까지 위험 노출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 한정 등 개정안 내년 4월 시행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앞.

한 대학생이 후문 입구 한 칸에 서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다가가더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동킥보드에 시동을 걸었다.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학생은 빠른 속도로 인파 사이를 이리저리 지나더니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인도로 질주했다.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대학생 A씨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지나는 전동킥보드를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뒤이어 대학생 6명이 수분 단위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탑승했는데, 이들 모두 인도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몰고 사라지긴 마찬가지였다.

전남대 후문에서 한시간 가량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을 살펴본 결과,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동킥보드가 도심 속 위험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헬멧도 미착용에 따른 처벌이 사라진 데다, 사용자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1500여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업체는 2곳으로 상무지구·수완지구·접단지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A업체가 1000여대, 전남대·조선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B업체가 500여대를 운영 중에 있다.

올해 중순만해도 경찰 등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50여대에 견줘 3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최근 광주지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은 급증한 반면 관련 법규는 크게

완화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지난 2일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법규 개정 이전이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지만, 이를 어긴 탓에 부상이 한층 컸다.

전동 킥보드의 성격상 사고시 머리를 다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규정이 삭제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생긴 셈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보도 이용이 금지되고 자전거도로와 차도 이용 시 우측 끝 차선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광주시 등 전국 7개 시도 69개 지점에서 관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찰 지점을 지나간 전동킥보드 1340대 가운데 63.5%(851대)가 '인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동기장치로 분류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 3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9일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운전자가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재개정안 다시 시행하려면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아직까지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음주운전도 처벌 없이 교차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되는 여러 맹점을 안고 있다"면서 "개개인이 안전에 힘써야 되며, 인도나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대학생이 휴대전화를 보며 인도 위를 주행하고 있다.

장난감 고쳐 쓰세요

광주 남구 내년 '수리병원' 개원

광주 남구가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 재사용을 촉진하고, 가계의 장난감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장난감 수리병원을 선보인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난감 수리병원은 영유아 양육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젓방젓 장난감 도서관과 양립동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 내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손기술을 보유한 주민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하고, 재능을 기부한 주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장난감 수리병원에서 일할 재능 기부자 4명을 공개 선발할 계획이다.

장난감 수리병원은 내년 5월 정도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이며, 방젓방젓 장난감 수리병원과 양립동 아이사랑 장난감 수리병원에는 각각 2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장난감 수리병원 이용 대상은 구입 장난감 도서관 등록 회원이거나 관내 미취학 자녀를 둔 유아 가정의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리 비용은 무상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품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택배를 통한 수리 요청도 접수할 예정이며, 이 경우 택배 비용은 이용자 몫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서구

녹색환경대상 종합대상

광주 서구가 최근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인 환경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상했다. 녹색환경대상은 환경보전에 힘써 온 지자체나 기업, 사회단체, 학계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광주은행 등이 주최한다.

서구는 화정 3·4동 주택지역에 태양광·태양열 377개소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등 414개소에 LED등을 보급해 소나무 약 35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었다. 또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2315대를 지원해 노후 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특히 서구는 도시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한 홍수, 지하수 고갈, 도시열섬 약화 등 물 문제 가중 현상을 줄이기 위해 비점오염 및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광주 지자체 최초로 추진해 물순환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복지사업 ▲대기질력 차단시스템 설치 ▲저탄소 자원순환사업 추진 ▲기후영향 최소화-물관리사업 추진 ▲대기환경보전 자전거이용 활성화 ▲폭염·한파·미세먼지 대응 등 다양한 환경 정책 도입과 선도적인 실천활동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1학년도 정시모집 집중 상담실 운영

광주교육청, 수험생 500명 대상

광주교육청이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2021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28~30일, 2021년 1월 4~6일까지 총 6일이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1인 1회(1회당 25분)만 가능하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은 사전 신청한 광주 일반고 3학년·졸업생·학교 밖 청소년 등 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운영진은 사전 동선 안

내 등을 통해 참가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은 진학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험생 맞춤형 상담이다.

진학 경험이 많은 현직 진학 전문 교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질 높은 개인별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등 상담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우재학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이번 2021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을 하기로 했다. 지역 진학 전문 교사를 위촉해 만족도 높은 정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2022년 도입 직업계고 학점제 설명회

전남교육청, 내년 46개교 연구선도학교 지정

전남교육청이 오는 2022년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도입을 앞두고 현장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직업계고 학점제 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영상시스템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직업계고 학점제 정책이해 및 선도학교 운영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위한 2021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 도내 직업계고 46교를 대상으로 권역 별로

3회에 걸쳐 열린 이번 설명회는 직업계고 교감, 교육과정부장, 특성화부장 등 교원 15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2021년 46개 직업계고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직업계고 46교 대상 컨설팅 지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소(농업계, 공업계) 개편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1. 7(목) ~ 11(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 범 예 능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지로 36